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행일 2023. 7. 12.(수) 통권 제199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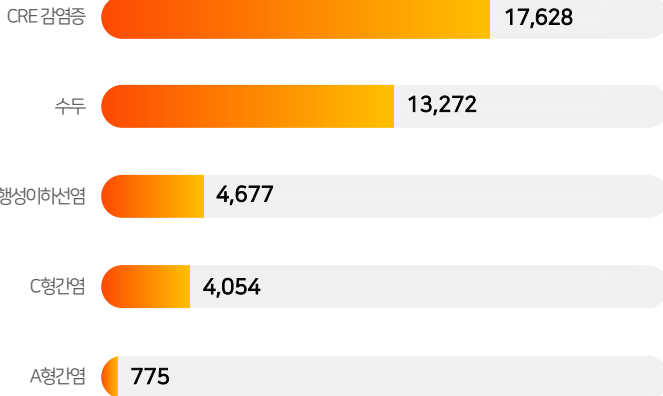
전 화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코로나19 현황
- 0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6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요활동
- 07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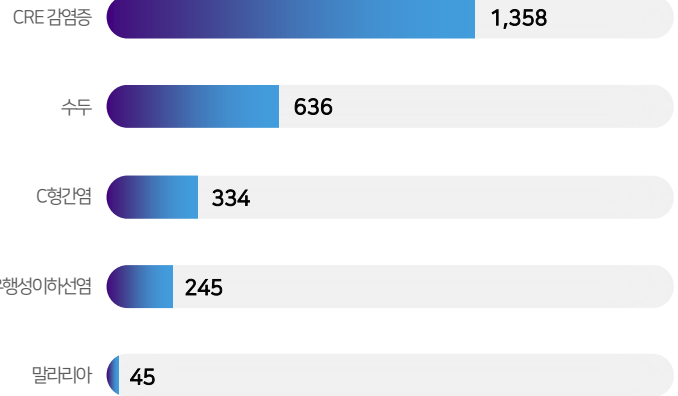
01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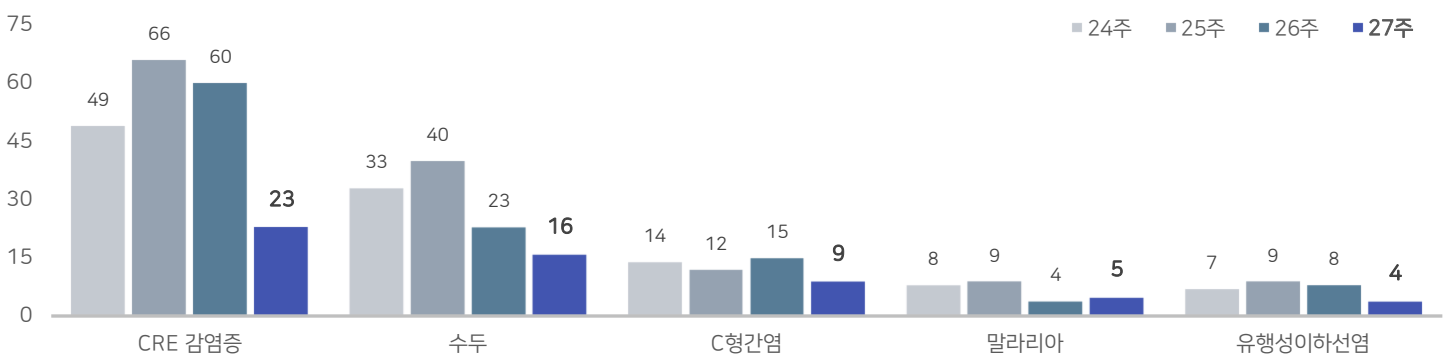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17,628건, 수두 13,272건, 유행성이하선염 4,677건, C형간염 4,054건, A형간염 775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1,358건, 수두 636건, C형간염 334건, 유행성이하선염 245건, 말라리아 45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023. 7. 12.(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3년 누적기간(1. 1.~7. 8.)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27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57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24-26주) 평균(119건) 대비 62건 감소
- CRE 감염증 23건, 수두 16건, C형간염 9건, 말라리아 5건, 유행성이하선염 4건 순으로 신고됨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3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3				동기간대비 (1-27주)				동기간대비 (1-27주)			
		27주	26주	25주	24주	2023	2022	증감	5년 평균	2023	2022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1
2급	수두	16	23	40	33	636	442	▲ 194	1,003	13,272	9,108	▲ 4,164	20,305
	홍역								2	4		▲ 4	36
	콜레라												
	장티푸스								2	20	17	▲ 3	32
	파라티푸스					1	2	▼ 1	1	25	12	▲ 13	22
	세균성이질					1	3	▼ 2	2	24	19	▲ 5	2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 2	2	99	80	▲ 19	92
	A형간염		3	1		38	86	▼ 48	236	775	1,228	▼ 453	3,247
	백일해								4	19	18	▲ 1	81
	유행성이하선염	4	8	9	7	245	174	▲ 71	279	4,677	3,229	▲ 1,448	5,460
	풍진								0				1
	수막구균 감염증								0	5	1	▲ 4	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 1	1
	폐렴구균 감염증			2	2	25	20	▲ 5	17	236	184	▲ 52	221
	한센병										1	▼ 1	2
	성홍열		1		1	13	9	▲ 4	73	296	218	▲ 78	1,423
	VRSA 감염증										1	▼ 1	1
	CRE 감염증	23	60	66	49	1,358	1,297	▲ 61	948	17,628	13,631	▲ 3,997	11,449
	E형간염	2	1			11	6	▲ 5	6	247	267	▼ 20	185
3급	파상풍					1		▲ 1	0	8	10	▼ 2	13
	B형간염		1			10	10	- 0	11	181	174	▲ 7	190
	일본뇌염												
	C형간염	9	15	12	14	334	360	▼ 26	397	4,054	4,493	▼ 439	5,148
	말라리아	5	4	9	8	45	19	▲ 26	26	329	142	▲ 187	195
	레지오넬라증	1	1	1		10	6	▲ 4	10	231	129	▲ 102	186
	비브리오패혈증		1			1		▲ 1	0	2	3	▼ 1	3
	발진열						10	▼ 10	3	5	13	▼ 8	5
	쯔쯔가무시증				1	4	7	▼ 3	5	593	504	▲ 89	468
	렙토스피라증				1	1		▲ 1	0	18	36	▼ 18	29
	브루셀라증									1	3	▼ 2	2
	신증후군출혈열					3	1	▲ 2	2	110	82	▲ 28	104
	CJD/vCJD								1	14	29	▼ 15	27
	뎅기열	1				5		▲ 5	3	65	15	▲ 50	42
	큐열					1	1	- 0	1	19	32	▼ 13	40
	라임병								1	7	1	▲ 6	7
	유비저								0	2		▲ 2	2
	치쿤구니아열									7	3	▲ 4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								1	44	48	▼ 4	51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1		▲ 1	1

- 27주차(2023. 7. 2. - 2023. 7. 8.)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3. 7. 12.(수) 질병관리청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19-2023)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간(2019-2023) 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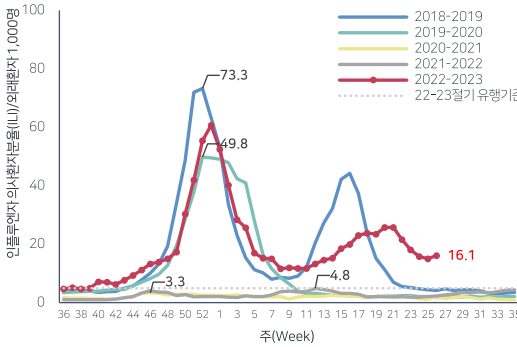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2-2023절기)

- (전국) 2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6.1명으로 전주(15.0명) 대비 증가
- (인천) 2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2명으로 전주(20.4명) 대비 감소
- ※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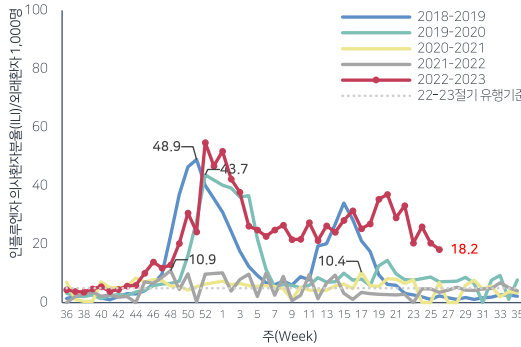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3년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전국	23.4	25.7	25.7	21.5	18.1	15.7	15.0	16.1
인천	35.4	37.0	29.0	33.2	20.4	25.9	20.4	18.2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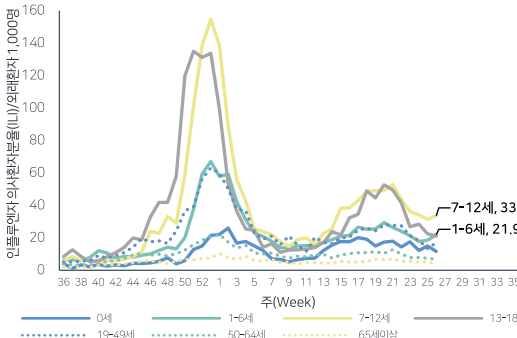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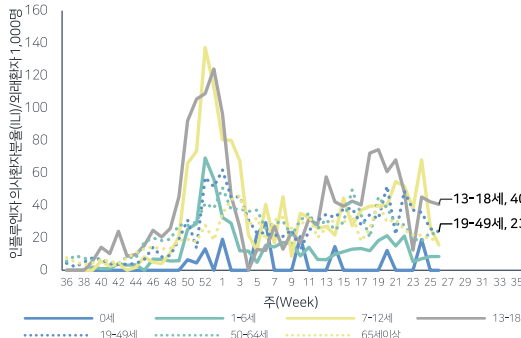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천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 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2-2023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2022-2023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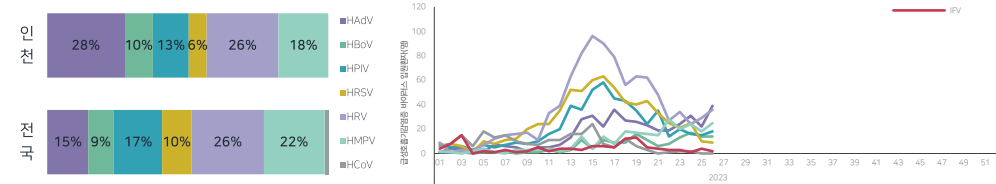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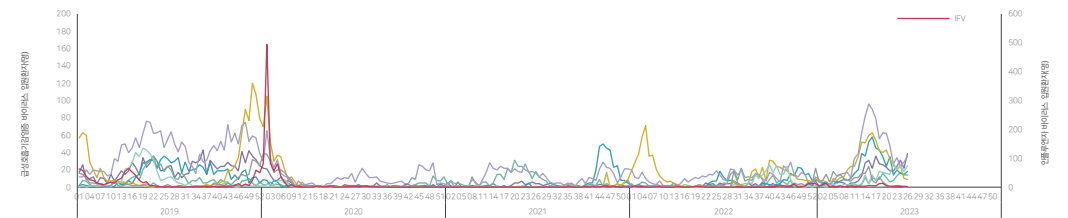
- 26주차(2023.6.25.~2023.7.1.) 표본감시 현황은 2023.7.10.(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보고 및 2023년도 26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6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20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인천광역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11개
- * 인천광역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13개

- (인천) 26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141명으로 전주(108명) 대비 증가
- (인천) 26주차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2명으로 전주(4명) 대비 감소

2023년 26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현황



최근 5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현황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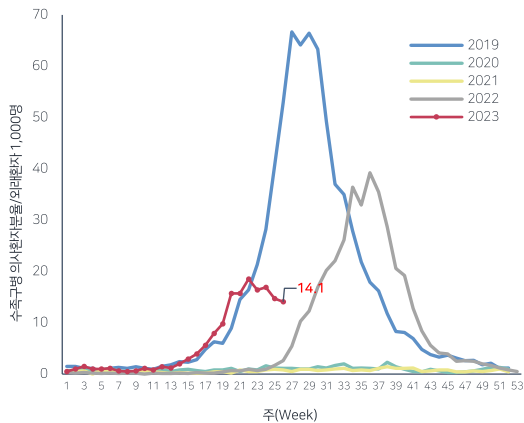
- (전국) 26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4.1명으로 전주(14.7명) 대비 감소
- (인천) 26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0.6명으로 전주(0.7명) 대비 감소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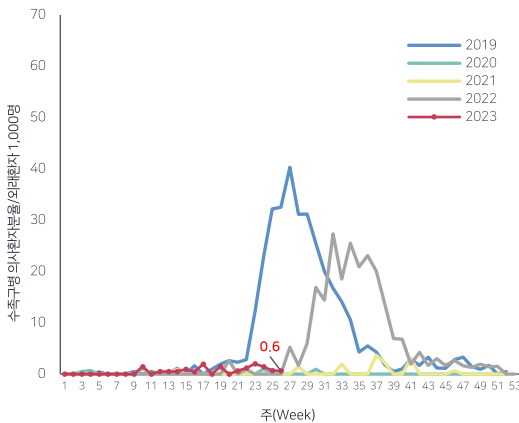
구분		2023년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전국	전체	9.8	15.7	15.7	18.5	16.4	16.9	14.7	14.1
	0-6세	13.6	20.0	21.0	23.7	22.3	22.3	17.3	16.2
	7-18세	2.1	7.1	5.9	8.2	4.9	5.7	9.5	9.6
인천	전체	1.4	0.0	0.6	1.2	2.0	1.4	0.7	0.6
	0-6세	2.2	0.0	0.9	1.9	3.1	2.1	1.0	0.9
	7-18세	0.0	0.0	0.0	0.0	0.0	0.0	0.0	0.0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천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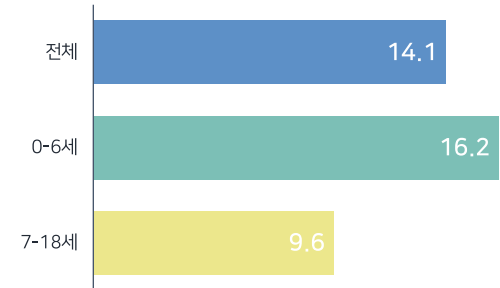
2019-2023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2019-2023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인천)



2023년 26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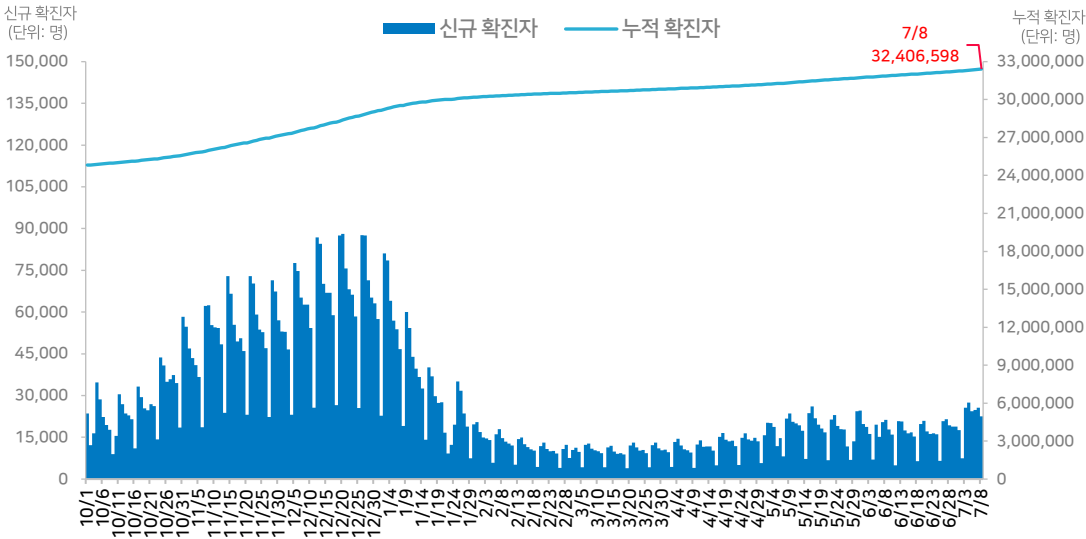


2023년 26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인천)



- 26주차(2023.6.25~2023.7.1.) 표본감시 현황은 2023.7.10.(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웹보고 및 2023년도 26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09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 인천광역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6개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주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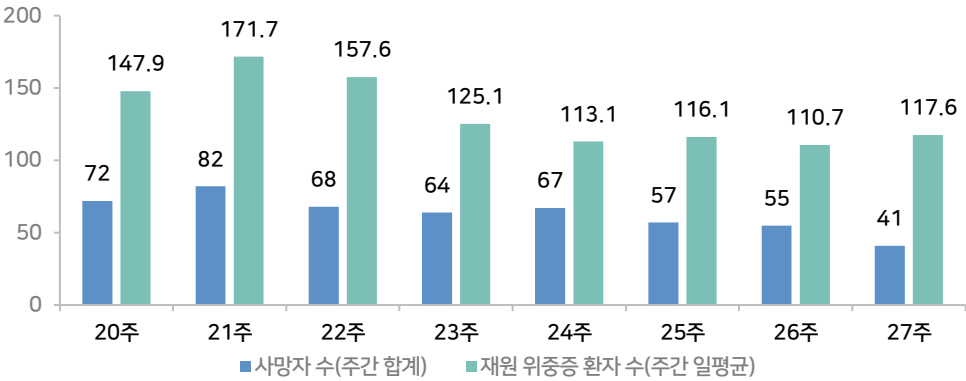
2023. 7. 9. 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사망	재원 위중증	확진
최근 7일간 일평균 (7.2.~7.8.)	5.9	117.6	22,570.6
(누적)사망 35,109명		(누적)확진 32,406,5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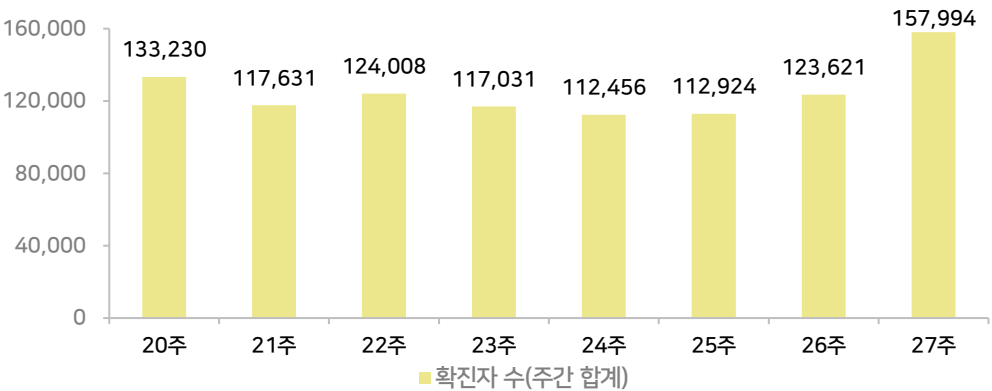
※ 잠정 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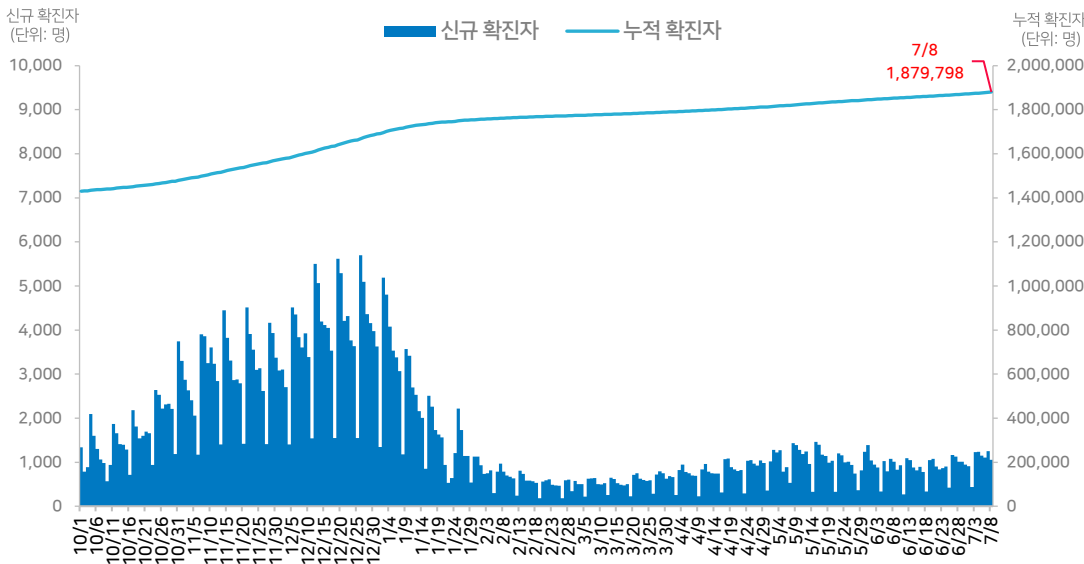
사망 및 재원 위중증



확진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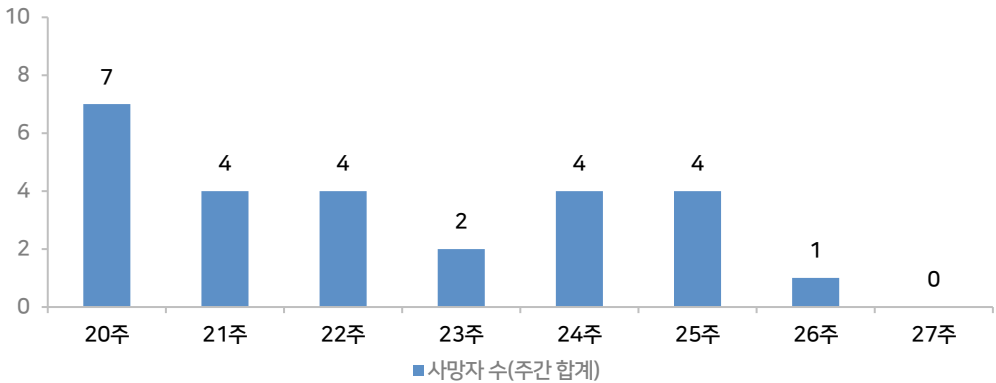
주간 발생 현황

2023. 7. 9. 0시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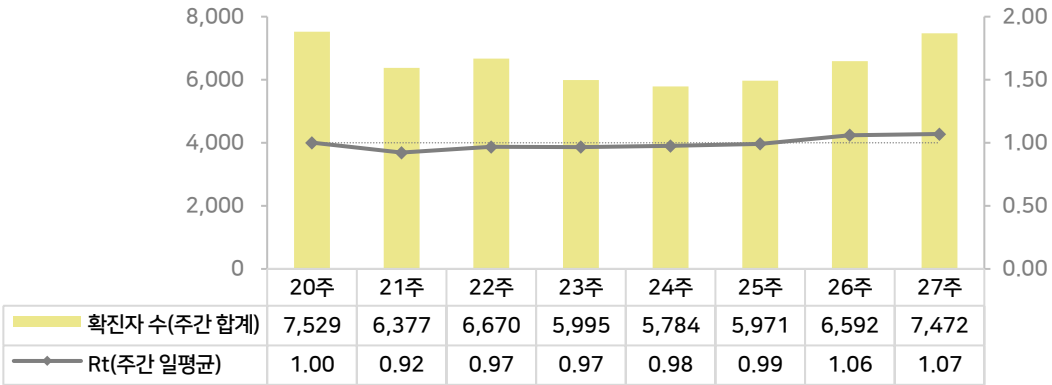
구분	사망	확진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최근 7일간 일평균 (7.2.~7.8.)	0.0	1,067.4	1.07
(누적)사망 1,938명		(누적)확진 1,879,798명	

(단위: 명)

사망



확진 및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코로나19 현황
(인천광역시)

1)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Time-varying reproductive number, Rt): 특정 시점 t에서 인구집단의 평균 감염력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짐,
R = 1: 지역사회에 일정 수의 감염자가 유지됨,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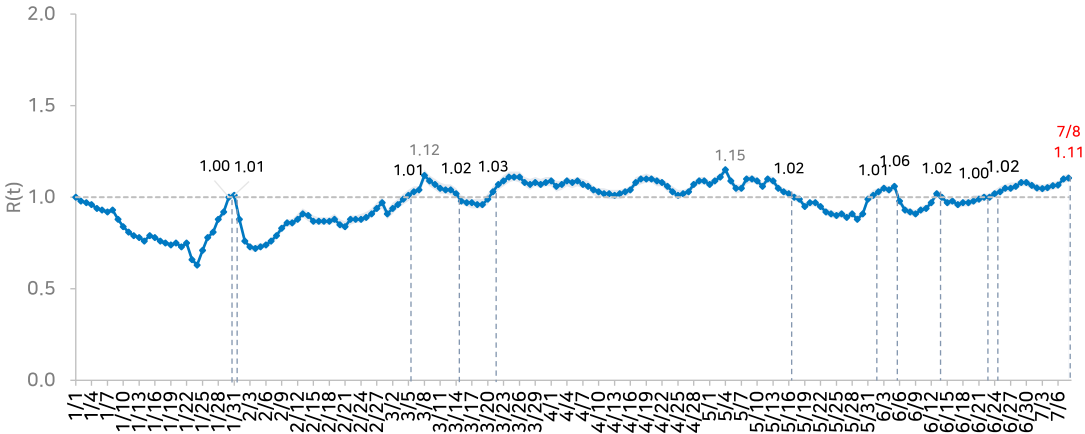
2) Cori 방법 이용, 각 점은 1일을 의미함

주간 위험도 평가 지표

- ✓ 최근 1달간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최근 1주간(7.2.~7.8.)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67.4명으로 직전 1주(941.7명)보다 125.7명(13.3%) 증가하였음
 -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 수는 0.3명으로 직전 1주(0.7명)보다 0.4명(60.0%) 감소
 - 60세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는 271.9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25.5%임
 - 18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5.7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5.5%임

구분		24주 (6.11.~6.17.)	25주 (6.18.~6.24.)	26주 (6.25.~7.1.)	27주 (7.2.~7.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국내발생	825.3	852.7	941.0	1,067.1
	해외유입	1.0	0.3	0.7	0.3
	전체	826.3	853.0	941.7	1,067.4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1,563	1,607	1,674	1,903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27.0	26.9	25.4	25.5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926	1,079	1,196	1,160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6.0	18.1	18.1	15.5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0.98	0.99	1.06	1.07

- ✓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 2020.1.20.~2023.7.8. 인천광역시 일별 확진자(확진일)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값임



병상 현황

2023. 7. 9. 18시 기준(단위: 병상, %)

구분	확보병상	사용병상		가용병상	
중증환자 지정 병상	26	3	11.5	23	88.5
준중환자 지정 병상	27	3	11.1	24	88.9

[국내] 리슈만편모충증, 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리슈만편모충증, '21년도 이후 2년 만에 해외유입을 통한 환자 발생
-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sand fly) 물림 주의 당부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브라질, 콜롬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페루, 시리아 등

-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하고 2021년 이후 2년 만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힘.
-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됨.
- 리슈만편모충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함.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됨.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 사례가 확인됨.
-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한 질병임.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리슈만편모충증 개요]

- 리슈만편모충증은 모래파리(sand fly)에 의해 전파되고 *Leishmania* 속의 원충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질환임
 - 모래파리들은 일반적으로 해질녘에서 새벽까지 왕성하게 활동
- 리슈만편모충증은 감염되는 부위에 따라 각각 피부, 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cutaneous, mucocutaneous, visceral leishmania)으로 구분
- 피부리슈만편모충증 증상
 - 리슈만편모충 감염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피부에 병변 일으킴
 - 피부 상처는 모래파리에게 물린 후 짧게는 수 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안에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와 크기가 변함
 - * 드물게 외상이나 면역억제효과로 인해 수 년 후에 나타날 수 있음
 -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등으로 시작되어 궤양으로 발전
- 피부리슈만편모충증 지역별 특성
 - 전세계 발생의 95%가 중남미, 남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발생
 - 중남미 지역: *Lutzomyia* 속 모래파리에 의한 전파
 - * *Leishmania mexicana*, *L. amazonensis*, *L. venezuelensis*, *L. braziliensis* 등
 - 남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Phlebotomus* 속 모래파리에 의한 전파
 - * *Leishmania tropica*, *L. major*, *L. aethiopica*, *L. infantum* 등
- 감염예방
 - 여행 시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래파리에게 물리지 않도록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임
 - 외부활동 시 긴 옷을 입고, 노출 피부에는 기피제 사용
 - * 감염을 막기 위한 약이나 백신은 없음

[국외] 탄저/인도네시아 - 병으로 죽은 소 섭취 후 집단발생

- 1명 사망 보고 후 역학조사 결과 총 93명 감염 확인

-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남부 욕야카르타(Yogyakarta)주 구농키둘(Gunung Kidul)지역에서 병든 소의 고기를 섭취 후에 탄저가 집단 발생하여 93명이 확진되고 3명이 사망함.
- 6월 초 탄저 환자 1명이 사망 보고되어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 한 환자가 병으로 죽은 소를 도축하여 섭취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해당 소고기를 나누어 준 것을 확인함. 총 마을 주민 125명이 소고기에 접촉하거나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 총 환자는 93명이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탄저는 전파 경로에 따라 피부탄저, 위장관·구인두 탄저, 흡인 탄저로 구분되며, 감염된 육류를 부적절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경우 위장관 탄저에 감염될 수 있음. 위장관 탄저 감염시 초기에는 발열, 오한, 구토,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토혈, 복통 혈변 등의 증상과 함께 패혈증으로 진행되며, 항생제 미치료시 치명률은 25~60%로 알려져 있음.

[국외] 말라리아/미국 - 지역사회 내 발생으로 경보발령

-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환자 총 5명 발생

- 미국 2개 주에서 지역사회 발생으로 추정되는 삼일열 말라리아가 5건 보고되었고,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함. 미국에서는 2003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의 소규모 발생(8명) 이후 지역사회에서 처음 확인된 말라리아 발생임.
- CDC는 말라리아로 인한 미국 내 말라리아의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환자 진료 시에도 말라리아 진단 고려를 안내하였으며 환자 에게는 말라리아 의심 시 즉각적인 치료를 권고함.

[국외] 작은와포자충 감염증/미국 - 수영 대회를 통한 2차 전파

- 해외 유입 후 수영대회에 참가한 다른 팀 선수 2명 추가 발병 확인

- 푸에르토리코로 훈련을 다녀온 미국 대학교 수영팀 선수들에게서 작은와포자충 (Cryptosporidium)으로 인한 장염증상이 발생하였고, 증상 발생 후 참여한 수영대회를 통한 2차 전파가 확인됨.
- 메사추세츠 공중보건부는 수영장을 폐쇄한 후 소독조치를 실시하였고, 수영대회에 참가한 뉴욕과 로드아일랜드팀에 해당 사실을 안내함. 뉴욕 선수들에게서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로드아일랜드 선수들 중 2명이 노출 7일 후부터 증상이 발생함.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작은와포자충 양성이 확인되었으며 추가 분석 결과 같은 아형으로 확인되어 수영대회를 통한 2차 전파가 추정됨.
- 해당 사례를 통해 ①수영선수들간에 지속적인 작은와포자충 전파 가능성, ②환자 대변 검체에 대한 신속한 검사 필요, ③건강한 수영 장려(유증상시 수영 자제 등)가 시사됨.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요활동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7월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07/04

2023년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3차시]

- ✓ 일정: 2023. 7. 4.(화) 16:00 ~ 18:00
- ✓ 장소: 온라인 비대면
- ✓ 내용: 사건기반감시체계 및 신속위험평가 / 이지아 보건연구관(질병관리청 위기분석담당관)
- ✓ 대상: 전국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소속 연구원



07/10

인천광역시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 ✓ 일정: 2023. 7. 11.(화)
- ✓ 장소: 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 내 교육장
- ✓ 내용: 인천광역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 시행
- ✓ 대상: 인천 소재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000761-0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정보집 ②



질병관리청

리슈만편모충증 (Leishmaniasis)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기생충질환으로 피부에 구진, 염증, 궤양 등 증상을 나타냅니다. 임상증상에 따라 피부/내장/피부점막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감염되나요?

리슈만편모충에 감염된 모래파리에 물려 인체감염됩니다.

어디에서 감염되나요?

해외 리슈만편모충증 유행지역은 멕시코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유럽 등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나요?

모래파리에 물린부위가 가렵다가 구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며 피부궤양을 형성합니다(잠복기 2주~수개월).

누가 감염에 위험한가요?

리슈만편모충증 유행지역 여행자에게 감염 보고되며, 특히 모래파리에 노출될 수 있는 야외활동시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치료 및 예방 어떻게 하나요?

임상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지며,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하여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치료의약품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어떻게 검사 하나요?

검사는 혈액과 조직에 대해 현미경 및 유전자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하며,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의뢰 가능합니다.

*검사문의: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043-719-8525)

피부리슈만편모충증 유행국가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이란, 파키스탄 등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유행국가



브라질, 케냐, 인도, 수단 등

출처: modified WHO leishmaniasis annual report, 20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정보집 ②



리슈만편모충 매개 모래파리 주요종



Phlebotomus속 모래파리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 서식

출처: Ray Willson



Lutzomyia속 모래파리
남아메리카 서식

출처: Ray Willson



모래파리 크기는 1.5~3 mm로
모기(5 mm)에 비해 작다



멀리서 봤을 때 모래파리 모습

출처: Nataly A. Souza 제공, Seth Britch, USDA

리슈만편모충증 임상증상



출처: F1000Research 2017, 6(F1000 Faculty Rev):750 Last updated: 30 MAR 2022, Journal of Dermatology 2014; 41: 926-928.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진단문의: 매개체분석과 043-719-8525

신고문의: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043-719-716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Q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으로 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있습니다. 단, 말라리아는 국내 외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전파되나요?

바이러스나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되지 않습니다. 드물게 혈액(수혈, 장기이식 등)을 통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감염자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능합니다.



모기 물림



혈액 전파

Q 어떤 증상이 있나요?

발열, 두통, 관절통, 결막염 등이 주요 증상이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Q 감염병에 걸리면 치료가 되나요?

말라리아를 제외하고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증상 초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 가능합니다.

Q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국가 여행 후 현혈해도 되나요?

입국 후 4주간은 현혈 보류기간이며, 방문 국가에 따라 현혈금지 기간이 다르므로 현혈하기 전 해당 혈액원(대한적십자사 1600-3705, 한미음혈액원 02-596-2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1339
국민건강보험공단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한 모기매개 감염병 바로알기!



✈ 여행 전 준비하기!



* 질병관리청(kdca.go.kr), 해외감염병 NOW 누리집 확인

- 여행 국가의 모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 확인하고, 필요 시 예방접종 및 예방약 복용하기
- 모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챙기기

황열

유행국가(남미, 아프리카) 방문 시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방문하기 최소 10일 전 접종해야 합니다.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국가인지 확인)

말라리아

국가별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에 대한 내성이 다르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여행 중 조심하기!



기피제



모기향



밝은색 긴팔, 긴바지



방충망



모기장

-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기
- 여행 중 모기 퇴치용품(기피제, 모기장, 방충망 등) 사용하기
- 풀숲이나 산속 등 모기가 많은 곳은 피하기
- 어두운 색 옷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기
-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의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 금지, 야외 활동 후 땀 제거 및 땀이 묻은 옷은 철저히 세탁하기

📋 여행 후 확인하기!



발열



발진



근육통 또는 관절통



결막염



두통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두통,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알리고 진료받기

남녀모두
3개월간
성접촉 피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후 최소 3개월간 임신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